

동화

귓속에 사는 무당거미

안수자

“오”

빠, 어떡해! 잠자리가 두 마리나 죽었어.”
아침부터 송이는 곤충채집통을 들고 징징거렸다.
“걱정 마. 오늘 다시 잡아줄게.”
송이는 손가락으로 귓속을 걸고 도장, 복사까지 하면서 내게 다짐을 받았다.
심심한 우리들은 만날 잠자리 잡고 매미 잡으며 놀았다. 놀다가 채집통 속의 잠자리들을 모두 놓아주곤 했다.
오늘도 곤충채집통의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겨우 잠자리 두 마리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꼴깍도 하지 않았다. 송이가 한 마리씩 깨내서 풀잎 위에 살짝살짝 올려놓았지만 날아가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거미줄을 걸으려 갔다. 무당거미는 더 높은 곳에 집을 지어

갑자기 왼쪽 귓속이 따끔했다.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귓속을 후볐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오빠! 왜 그래?”
송이가 달려왔다.

“거미가, 거미가 내 귓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뭐?”
“무당거미가 내 귓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니까!”
“에이, 거미가 어떻게 귓속으로 들어가?”

송이가 내 귓속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로 아파?”

“뭐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아 간질간질하고, 먹먹해.”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냐?”

병원이라는 말에, 금세 귓속이 거

에 거미줄을 걸었다. 거미줄을 여려겹으로 거두 걸었더니 끈적끈적 하면서도 제법 꽝꽝한 거미줄잠자리체가 만들어졌다.

송이와 난 그 잠자리체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잠자리와 매미를 잡았다. 잠자리를 잡다가 거미줄잠자리체에 구멍이 뚫리면 다시 거미줄을 걸어서 고쳤다. 더 이상 거미줄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잠자리와 매미를 잡았다.

잠시 지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이가 곤충채집통과 잠자리체를 들고 들어왔다. 곤충채집통에는 잠자리 세 마리와 매미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오빠, 빨리 잡으려 가자!”

송이는 매미를 더 잡아달라고 졸랐다.

“귀가 아프니까 다음에 잡아줄게.”
내가 삐다고 하자, 아침에 한 약속을 지키며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자리체를 들고 송이를 따라 나섰다.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로 갔다. 느티나무에는 매미가 많았다. 하지만 난 매미를 잡을 수가 없었다. 송이가 잠자리체를 뺏어가서 매미 한 마리를 잡았다. ‘찌르르르’

쇳소리가 들렸다. 고막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
“윽.”

두 손으로 귀를 감싸고 주저앉았다.

“매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지.”

“네 목소리도 안 들려!”

“오빠, 왜 그래?”
매미를 잡아 곤충채집통에 넣던 송이가 놀래서 달려왔다. 설마 했는데, 웃기는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거미가 들어간 것 같았다.

“매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장난치지 마!, 괜히 매미 잡기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지?”

송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나를 바라봤다.

“아냐, 정말이라니까.”



그림=임병중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대학원 졸업 ▲제14회 광주미술상수상

▲서울문화미술제 등 다수의 전시 참여

감

자기 귓속이 조용해졌다.
놀란 매미와 잠자리들이 날개를 파닥이며 자꾸만 채집통 벽에 부딪쳤다.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다시 날아올라서 벽에 부딪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닥거리는 날개로 내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살려줘! 살려줘!’

나는 곤충채집통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갇혀있던 잠자리와 매미들이 날아올랐다.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는 잠자리와 매미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오빠! 괜찮아?”

울먹이는 송이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온 몸에 물은 흙을 털어냈다. 송이가 텅 빈 곤충채집통을 보고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그만두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 아빠 모두 밭에서 안 오신 모양이다. 나는 조심조심 마루에 걸터앉았다. 잘못 움직이면 또다시 귓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신발을 신은 채 가만히 마루에 등을 대고 누웠다.

밖으로 달려 나간 송이가 엄마를

모시고 왔다.

“귓속에 거미가 들어갔다고? 소리가 잘 안 들려?”

엄마의 두 눈이 둥그레졌다.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럼, 거미가 나온 거야.”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는 귀에 손전등을 비추며 살펴보셨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보자.”

나는 엄마를 따라 읍내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갔다.

의사선생님이 귓속에 불편처럼 생긴 기계를 집어넣자 컴퓨터 모니터에 귓속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에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흔적이 있군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귓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귀가 먹먹하니 소리가 아예 안 들리기도 했대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말했다. 의사선생님은 몸이 약하거나 기운이 없으면 가끔 귀가 먹먹하고 환청이 들릴 수도 있다고 하셨다.

<13면으로 계속>

2011학년도 광주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정시 1차 : 2010. 12. 20 (월)~2011. 1. 7 (금)

▶정시 2차 : 2011. 1. 19 (수)~2011. 1. 28 (금)

▶정시 3차 : 2011. 2. 11 (금)~2011. 2. 22 (화)

▶입학상담 : (062) 958-7511~4

광주보건에서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